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박*원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untsville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약 9개월 (2개 학기)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샘휴스턴 주립대학교는 텍사스 동부, 휴스턴이라는 대도시로부터 한 시간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있는 도시에 위치합니다. 헌츠빌이라는 도시이며 매우 작은 시골동네 같은 마을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하며, 큰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상점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학교도 웬만한 아파트들에서는 걸어갈 수 있으며, 다른 가게들 또한 걸어 갈수 있을만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이 하나도 있지 않아서, 날이 덥고 습한 텍사스 날씨 때문에 걷는 부분을 힘겹게 느끼기도 했으며, 가게들이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있지만 큰 상점들이나 쇼핑몰 같은 곳들은 헌츠빌 내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불편함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비교적 크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매우 활기차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순천향대와 비슷한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다가오는 친구들에게 호의적인 편입니다.</p>
2014-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p> <p>전공과목과 복수전공과목, 그리고 교양과목을 모두 수강하였었는데, 일단 교양과목으로는 프랑스어수업과 현대무용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언어수업은 친구들이 모두 적극적이어서 활기찬 수업분위기를 띄고 있고, 다들 모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를 한다는 점에서 저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점들이 비슷하여 같이 공감하고 서로 도와가면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좋았습니다. 반면에 언어수업은 기초부터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 가야 하는 게 특징이므로, 꾸준함을</p>

	<p>필수로 요구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스수업은 부끄럼이 많았던 저에게 있어서 자신감 갖게 도와주었으며, 적극적인 친구들에게서 많은걸 느끼게 해준 수업이었습니다. 정적인 수업이라기보다는 매우 활동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p> <p>또, 전공과목으로는 composition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많은 글쓰기를 요구하며,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 해야 하는 과목이지만 열심히 한다면 writing실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교수님께 제출을 하기 전에도 많은 수정작업을 거치며, 제출 후에도 잘못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p> <p>외에 복수전공 수업으로는 조직행동론을 수강하였는데, 교수님의 특별한 억양 때문에 수업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특유의 southern accent, 즉 남부 사투리 같은 것을 사용하는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음을 많이 늘리고 소리를 끌면서 끊어 말하지 않는다고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심한 교수님들이 꽤 있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해가서 수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파악한 후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차 수업을 들으면서 익숙해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될 것이고, 수업을 이해하는데 힘이 들 때에 교수님에게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수업을 따라 가는 데에는 무리가 오지 않을 것 입니다.</p>
2015-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1학기때, 전공수업으로는 영어문법수업, 전공수업으로는 통계수업과, 경제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교양수업으로 지리학수업과, 힙합댄스수업을 수강했습니다. 2번째 학기에서는 처음 학기에 비해선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훨씬 덜했었습니다. 영어문법수업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개인적으로 공부해왔던 것들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문법을 원래 배워왔던 방식과 조금 다른 각도로 배우는 것이라 색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또, 통계수업은 경영통계학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수학교과목에서의 통계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잘 만나서 무난하게 수업을 잘 이수 했던 것 같고 수업 그 자체의 수준은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과제가 많거나 시험이 어렵지도 않고 아주 기본수준의</p>

	<p>통계수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학수업은 입문수업이지만, 수업의 수준이 아주 쉽지는 않았고, 꾸준함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경제원리와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용어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 가야 하는 수업입니다. 특별한 과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시험은 그 수업을 잘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교양과목으로 신청했던 지리학수업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외울게 많고 조금 까다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고, 이 과목자체가 아주 광범위한 지리학분야를 다루는 수업이다 보니, 깊게는 아니지만 알고 넓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어들의 암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과제와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부담을 가지지 않고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담이 많이 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유익하고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힙합댄스라는 교양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수업을 배우고 따라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과제의 부담 또한 없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으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프로그램 등</i></p> <p>처음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학기 개강이전에 미리 있었으며,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게임과 같은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에 관련된, 혹은 교환학생으로서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학교의 국제교류처와 같은 국제교류학생처 같은 부서에서 Amber이라는 담당 선생님께서 행사를 주관하시고, 그 국제학생동아리와 같은 부서의 학생들이 함께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끌었습니다.</p> <p>이외에, 매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 차를 타고 나가야 있는 walmart와 같은 shopping trip도 있고, 주말을 이용한 Houston trip등과 같은 trip들이 항상 있습니다. Huntsville 바로 옆에 위치한 Woodlands에 있는 shopping mall, Houston에 위치한 한인 마트 trip과 같은 것들을 거의 매주 제공합니다. 또 이외에도, coffee hour과</p>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만남의 시간들을 마련하기도하고, Thanksgiving, Halloween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에 맞는 이벤트들을 주최합니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Huntsville 도시의 기후는 남부에 위치한 만큼 매우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8월 중순 가장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의 날씨 정도로 여름이 매우 매우 덥고,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텍사스가 덥지만 건조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도시는 매우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중 반 이상이 매우 더운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겨울이 되어도 얇은 자켓으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춥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날씨의 변덕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아주 심하게 쏟아지기도 하고, 계속 매우 흐리다가 맑게 개기도 하고,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정도에는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매우 따뜻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여행은 해보았지만, 거주하며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의 정도를 비교 하는 게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Huntsville은 비교적 안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나 주변에서 homeless 사람들을 본적이 없으며, 도시 자체가 너무 더럽거나,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된듯한 느낌을 띠는 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도시 느낌이어서 인지, 어떤 길을 가거나 할 때에, 위협을 느낀다거나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들을 여행할 때에는 그러한 곳들이 아주 변화가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들이라 그러할 수도 있지만, 길거리가 매우 지저분하고 번잡하며, homeless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길을 지나다니면서 겁에 질리고, 불편했던 적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비하면, Huntsville은 매우 조용하고 깔끔하며 안정적인 도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Huntsville에는 동양인이 비교적 많이 있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p>

	<p>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많이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동양인 비율이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University House라는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숙소를 찾아보다가 들어가게 된 곳이었습니 다. 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내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학교 안의 기숙사는 방학 중에 제가 비워줘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방학중의 일정이 불가피하게 제가 학교에 머물게 된다면, 이러한 점들이 너무 불편할 듯 하여, 외부숙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의 기숙사안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저에게는 다른 곳을 찾게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파트를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거리적으로도 학교에서 너무 멀지 않아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신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이 깨끗하다고 하여, 이 아파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함께 교환학생을 온 다른 한 명의 친구가 함께 이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현지인과 함께 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같은 방에서 살지는 않았습니 다. 저는 그곳에서 4bedroom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함께 거실과 부엌, 세탁실을 공유하지만, 개인의 방은 다 따로 나뉘어진 곳이었습니 다. 3명의 친구들을 그곳에서 만났고, 지내는 데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숙소적인 부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 다.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새것들이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매우 저렴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부대시설과 함께 전체적인 아파트 내부시설에 비하면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기숙사가 아니라 개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특별한 유의사항은 있지 않았습니 다. 숙소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어려움은 없었으나,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O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식사에 대해서는, 외부숙소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Meal Plan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 점심과 같은 경우 외에는 캠퍼스 밖의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교식당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위치한 외부식당들, 혹은 개인적으로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외부식당들 외에는 걸어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대중교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사귄 현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식당들을 이용했고, 주로 함께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과 장을 보고 요리를 하여 음식을 많이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와 학교 중간에 장을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식료품점이 있어서 주로 그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때때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인 마트 trip때에 참여하여, 함께 그 한인 마트에 가서, 한식 재료들을 많이 사 놓아 두었고, 그러한 것들로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평일 점심때에는 주로 교내식당과, cafeteria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식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거나 힘들지 않았고, 입맛도 잘 맞았으며, 개인적으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면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통학은 학교에서의 거리가 20분 이내이기 때문에 주로 걸어 다녔고, 아주 가끔 지인이나 친구들을 가는 길에 만나는 경우에 함께 그분들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20분이내의 거리이지만 정말 쉽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캠퍼스 내에서 지내거나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서는 특별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것은 있지 않으며, 택시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내를 이동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친구를 사귀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이동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주요 도시로 이동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자체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장 곤란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Huntsville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주로 친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trip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거나 하는 방법으로 너무 제한되어있어 저에게는 이러한 점이 많이 답답하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Huntsville 도시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고 큰 도시가</p>

	<p>아니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특별하게는 할게 마땅치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도시로 좀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이동을 하면, Woodlands와 Houston과 같은 주요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한다면, 좋은 경험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p>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미국 행 약 ₩1,000,000 한국 행 약 \$800	
Fees	International Student Fee \$12를 한 학기에 한번, 총 2번을 지불하였습니다.	
보험료	학교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으며, 2학기를 포함해서 총 \$1500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외의 다른 여행자 보험과 같은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숙소	매월 \$480	아파트 rent비용으로 매달 지불하였습니다.
식비	매월 약 \$400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 주로 30만원에서 그 이상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통비	거의 사용하지 않음	
책값	권당 \$100 이하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교양 수업들은 주로 교재를 요구하지 않았고, 전공 과목들은 요구했지만, 그 가격이 보통 \$100이 넘어 가기 때문에, 저는 책을 rent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파견 전, 일단 항공권과 그 거주지역에서 지낼 숙소, 비자발급과 여권 발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입니다. 우선적으로 여권발급 후에 비자발급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비자가 발급이 거절당하거나 늦어지면, 애초에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작성하고, 대사관에 가서 면접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준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권과, 비자 발급이 해결이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외국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숙소와 항공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소는 학교 캠퍼스 내에 살고 싶다면,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기간에 맞춰 기숙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외의 아파트를 구했기 때문에, 캠퍼스 주변의 아파트를 검색하고 비교해보며, 그 빈방이 남아있는지를 알고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지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아파트들의 방이 이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서 비교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본인의 계획과 상황에 맞춰서 요구하는 어떤 예방 접종 혹은 항공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2학기 동안의 미국 교환학생으로서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이전의 저는, 여행을 그다지 즐겨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이면서, 기회이고,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많이 닫혀 있던 저의 생각과 시야를 깨고, 열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전공과목이 영어이다 보니 그러한 것에 대한 경력과 경험을 쌓으려는 생각으로, 교환학생이라는 것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으며, 어떠한 변화를 선호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즐기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오히려 갖게 되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없어지게 되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모두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오히려,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바뀌어서 외국에서의 생활과 여행과 같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 졌습니다.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제 미래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 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만 대학 수업을 들어보았는데, 외국에서의 수업은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수업들간의 분위기가 너무도 다르고, 수업을 하는 방식과, 학생들의 느낌이 모두 정말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수업분위기가 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러한 점들이 참 매력적이었고, 많은 만족감을 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미국 현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두 번 다시 제가 할 수 없는 경험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교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교환학생 기간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에 많은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제가 더 발전하는 좋은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Sam Houston State Univ. Campus</p>	<p>NASA trip</p>
	
<p>State Fair in Dallas</p>	<p>Sam Houston Statue</p>
	
<p>Rodeo in Houston</p>	<p>Six Flags Trip in Arlington</p>